

투데이

“운영비 부담 요구 들어줬는데 진입도로 개설비 68억까지 내라니...”

조선대 “U대회 양궁장 우린 포기”

이사회 “市 일방적 요구 응할 수 없다” 결정
광주시 대체부지 물색... 서구 중앙공원 유력

광주시의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양궁장 신축 계획이 부지선정 과정에서 미숙한 행정 등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차질이 우려된다. 양궁장 부지 제공을 약속했던 조선대에서 광주시의 오락가락한 행정을 문체감이 양궁장 건립 계획을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시와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대학 측이 양궁장 예정부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광주시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선대 이사회 관계자는 “애초 광주시가 5년간 무상사용, 운영비 시 부담” 등의 양궁장 건립조건을 내세웠다가, 갑자기 ‘무상사용기간 30년, 운영비 100% 조선대 부담’을 요구하니, 이제는 내놔야 도로 개설비 68억까지 조선대에 부담하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사회에서 이러한 상호 신의를 깨는 광주시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

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대는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유니버시아드)를 도우려고 통역 자원봉사자 지원 등 시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해 주고 있다”면서 “양궁장 건립 부분도 조선대에서 알짜배기 땅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으로, 애초 시에서 요구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기로 했고, 또다시 변경한 조건도 받아들일기로 했는데, 이제는 내놔야 도로 개설비 68억을 내놔야 한다”고 한다. 이는 조선대 구성원들을 무시하는 행정행위로 수용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광주시도 조선대의 이러한 내부방침이 정식 공문으로 접수되면 시유지

와 공원 등을 대상으로 양궁장 대체부지를 물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서구 중앙공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공원은 서구 중앙동 일대 89만평에 이르는 공원으로 1975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5% 정도만 조성된 채 방치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선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전해오지 않아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지만, 만약 양궁장 건립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다른 부지를 찾아볼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동 중앙공원은 U대회 선수촌과도 가깝고, 행정상 문제도 없는 만큼 대체부지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운태 시장과 김동철·박해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물연구소 광주 설립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국립 물연구소 광주가 최적지”

광주시 서울서 국회포럼... 유치 박차

UN이 정한 ‘세계 물의 해’인 2013년을 앞두고 광주시가 ‘국립물연구소’ 유치를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물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약 3조 4600억원을 투자, 세계 물 산업 강국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오는 2016년까지 2000여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국립물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최근 광주과학기술원·(사)대한환경공학회와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는 광주가 ▲도시지역 중 국내 최고 비점오염원(불특정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관리 지역 ▲수질오염원이 명확한 광주천과 영산강 및 해양환경과 인접

▲전국 습지보호지역 26개 중 10개 호남 위치 등 물 연구 여건이 풍부하며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수담수화 등 물처리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및 개발 능력을 갖춘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물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수도학회 등이 국립물연구소의 광주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점도 큰 힘이다. 국립물연구소는 혁신적 물 과학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물 시장을 선도하는 게 주임무다. 연구 개발 분야는 ▲고도 물처리기술 및 수질관리 기술 개발 ▲물생태보호 및 환경 독성분야 연구 ▲해양 지역 ▲수질오염원이 명확한 광주천과 영산강 및 해양환경과 인접

변화 대응 물관리 및 에너지 개발 ▲지속가능한 물 인프라시스템 및 기술 개발 ▲물분배 네트워크 관련 기술 연구 ▲도심지역 물순환 시스템 개발 등이다. 한편, 광주시는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의 물 과학기술 연구와 국립물연구소 설립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UN이 2025년에는 세계 인구 절반이 물부족에 따른 고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국립물연구소의 광주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강운태 시장은 이날 “광주는 물 환경 개선이 시급한 광주천과 영산강이 있고, 바다와도 인접해 있는 등 물 관련 연구에 적합한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국립물연구소 유치를 통해 광주를 세계 물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

푸른길공원 주변에 ‘그린복지타운’

광주시, 505억 투입... 주택 112세대 등 개발

광주시 동구 일대 푸른길공원 주변에 ‘에너지 소비 제로 하우스 단지’인 그린복지타운이 조성된다. 시는 사업비 505억원(국비 41억원, 시비 65억원, 민자 399억원)을 투입해 폐선부지 인근에 있는 40년 이상 노후된 주택 112세대와 상가 30동 등 7700여㎡ 부지를 개발할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2013~2015년까지다. 각 주택은 태양열을 기본으로 지열과 고단열재 등을 활용해 전

기와 연료를 확보토록 만들어진다. 또 3층 이하의 저층으로 신축, 인접한 폐선부지의 푸른길공원과 연계해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 지역에 복지회관과 작은도서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도 조성하기로 했다. 개발은 일단 산하 도시공사 등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개발한 뒤 지역민들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한편 광주시는 21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푸른길 주변 그린복지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연다. 이번 보고회에는 강운태 시장이 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그린복지타운 지원 태스크포스트팀 및 용역을 맡은 ㈜제이앤지건축사 부설 제로에너지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진, 건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충인시설 입찰비리 연루
광주시 공무원 11명 파면

광주시는 20일 충인처리시설 입찰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8명 등 총 11명을 파면했다. 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충인처리 시설 입찰비리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8명을 파면했다. 또, 업무로부터 불복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수도사업본부 1명 과, 복귀청 공무원 2명도 파면했다. 시 관계자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 조치토록 돼 있다”며 “비리 공무원은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이순신 대교에 전망대 설치 추진

전남도는 20일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 대교에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등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광양에서 묘도를 연결하는 이순신 대교 주탑(높이 270m)에 전망대와 초고속 엘리베이터, 교육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탑 상단을 가로지르는 공간에 휴게시설, 교량 입구 쪽에 식당과 기념품 판매장 등을 민자 유치로 조성할

계획이다. 교량에 전망대 등이 설치된 곳은 일본 아카시대교, 호주 하버브리지 등 2곳뿐이다. 이순신 대교는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4월 준공에 맞춰 전망대 설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 묘도동과 광양시 금호동을 연결하는 이순신 대교는 왕복 4차로, 길이는 2260m에 이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당뇨합병증 제로화 사업’ 우수상

광주시는 “2012 지역복지 대상공모에서 ‘당뇨합병증 제로화도시 만들기’ 사업이 우수시책분야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당뇨합병증 제로화도시 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당뇨합병증의 가장 큰 원인인 낮은 걷진율과 당뇨병 관리 미흡 등을 광주시가 직접 나서 고지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당뇨병에 걸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보건의료 취약 시민 9000여명을 대상으로 당뇨합병증 조기발견 무료검사와 건강 영양교육, 대상증후군 검진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체계적인 당뇨병 예방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주시 박영석 건강정책과장은 “당뇨합병증은 중대 질환임에도 시민들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다양한 선진 복지 정책을 발굴·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전남지역 상품권 ‘현금깡’ 악용

전발원 실태조사, 실제 사용비율 11%로 낮아

전남지역 일선 시·군에서 유통중인 지역 상품권의 실제 사용은 1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현금깡’으로 악용되는 등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김진이 연구위원이 20일 발표한 ‘지역상품권 사용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

르면 지난 2007년 나주와 담양을 시작으로 여수, 곡성, 보성 등 8개 시군에서 모두 815억원어치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물품구매 결제 수단 중 현금(54.7%), 신용카드(33.5%)에 비해 상품권(11.8%) 사용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품권 중에서는 온누리상품권(64.7%)보다 지역상품권(35.3%)의

사용 비율이 더 낮게 집계됐으며, 명절 전후의 상품권 사용 비율이 1년 중 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역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일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간 상품권 연계 사용이나 전산 전 지역 사용이 가능한 통합 상품권 발행, 지역 내 관광명소, 특산물 구매 사용자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독일보청기 백화점. 청·저·한·독·일·인·의·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반영구적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대출금리:연5.5%~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현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리모델링전: 부채현황 70,000,000원, 총합중영회 15,000,000원, 시티은행 10,000,000원, 삼성카드론 9,000,000원, 다부유저축 8,0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솔로몬 저축 15,000,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100,000,000원, 총합중영회 40,000,000원, 시티은행 50,0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28 주소: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인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학협회 의료포럼의원 제120106-종-9820호(광교)